



Newsletter

with bible camp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긍휼과
자비에 합당한 삶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삶, 하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얻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간 WITH BIBLE CAMP 참석자 여러분, 우리가 짊어진 이름들의 특권을 누리고 있나요?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 이름의 무게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잊었다면 www.withbiblecamp.com에 들어가, 업로드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봐도 좋습니다. 아니면 캠프 북을 펼쳐서 말씀을 들으며 내가 기록했던 내용, 각오했던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캠프 북 뒤에 나오는 추천도서 중 하나를 택하여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는 <우리가 짊어진 이름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름의 특권에 감사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그 이름의 무게에 걸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캠프 때 고취된 우리의 영혼이 어느덧 일상으로 돌아가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휘청거릴 때, 우리 삶을 온전히 붙들어 줄 힘은 오직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이름을 주신 주

우리는 무언가 성취하거나, 대단한 업적을 쌓거나, 눈에 띄는 성숙을 이뤘을 때, 비로소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은 “그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 정체성을 규정합니다(요 15).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마땅히 구할 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구하십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여 그 말씀을 따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십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풍성한 공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짊어진 이름에 합당한 삶입니다(엡 2).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통해 심지어 실패하는 때에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 이름의 무게

그런 삶이 때론 얻는 삶이 아니라 잃는 삶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기쁘고 즐겁기보다는 실망스럽고 우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겨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빌 3:8).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고,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 존귀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만족이며,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높임 받는 것이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짊어진 이름들의 진정한 무게입니다.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다.



이름에 맞는 가치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와 같은 가치관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나의 가치관은 이제 “하늘 시민의 가치관”입니다. 우선순위 그 첫 번째 자리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 안의 거짓을 몰아내고,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빌 4:8).

페미니즘과 성경

우리가 받은 “이름”은 우리가 성 정체성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꿉니다.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역사적



으로 차별받은 부분, 현재까지 존재하는 차별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우리는 지지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은, 본질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갖는 존재라고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게 남성과 여성의 역할의 차이를 가르칩니다. 이 역할의 차이는 서로를 차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게 합니다.

현재 복음주의 페미니즘의 문제는 이 역할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각자의 역할을 무시하고,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성경 본문을 재구성하여 왜곡하면서까지 남녀의 역할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들로서 세상에서 유행

하는 성 정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는 정체성에 따라 성 정체성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가 가진 이름이 우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을 따르게 만듭니다.

균형잡힌 정체성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오직,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율법주의로 혹은 율법폐기주의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더 은혜 가까이 가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기 위해 무언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불가능한 시도에 지치고 낙심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정죄하는 삶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착각하며 이제는 주가 아닌 나를 위해 살아도 문제없다고 여기는 방종의 삶을 거부합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의 거룩하심을 좇아 살아가는 삶을 지향합니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의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 원합니다.

WITH BIBLE!

지금까지 우리가 짊어진 이름들에 관한 세 번의 말씀과 세 번의 강의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말씀과 강의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확고한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참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르게 고치고, 잘못된 삶을 교정하며, 올바른 삶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참된 것을 가르쳐 줍니다(딤후 3:16~17).



복 있는 사람이 악한 길을 걷지 않고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비결, 반대로 의인으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항상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비결은 그가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로운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WITH BIBLE CAMP 참석자 형제, 자매(자매, 형제 ^_^) 여러분, 캠프 타이틀처럼 우리는 항상 말씀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됩시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 그분이 직접 하시고 전수하신 말씀을 사랑하여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냅시다.

일상에서 우리를 혼드는 수많은 가르침과 사상들, 말과 속삭임에

귀를 막고, 말씀이 우리 귀에 항상 들릴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 생각에 항상 머물 수 있도록,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 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짊어진 이름들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것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요 15:10)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감추어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해,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알기 위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우리는 그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END.